



James W. Knox' s Sermon on Witnessing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쉬운 복음 쉬운 전도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이우진
펴낸이	김영균
초판발행	2011.8.10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립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www.ilovekjb.com
표지그림	이장용 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34-3

정가 5,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James W. Knox's Sermon on Witnessing

쉬운 복음 쉬운 전도

Simple Gospel Simple Witnessing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는 것이다

Your Best Choice...

JESUS CHRIST

Romans 6:23

Acts 16:31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목차

역자 서문 _6

제1과 일어나 가라 _9

제2과 씨뿌리는 자의 비유 _29

제3과 우물가의 여인 _53

제4과 빌립과 내시 _73

제5과 베드로와 고넬료 _93

제6과 눈먼 사람 _113

부록1 조지 가(街)의 복음 전도자 _129

부록2 하나님의 구원 계획 _135

역자 서문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딤후 2:4).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쉽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쉬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쉬운 것이면 그것을 전하는 일도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면 복음이 어려운 것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싫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은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자의 “성경적 복음전도(A Biblical Course in Witnessin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며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싫을 수는 있어도 알려주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았 으면서도 복음을 못 전할 만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 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설교한 *Witnessing*의 내용 중 몇 가지를 선별하여 요약하고 옮긴 것입니다. 책이 아닌 설교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요약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비록 요약이지만, 원래 강의

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책의 뒤에는 “조지 가(街)의 복음 전도자”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였습니다. “조지 가(街)의 복음 전도자”는 원래 영상물인데 자막을 참고하여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와 잘 맞고 독자에게 도전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1년 7월

역자 이우진

제1과 일어나 가라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전도로 약 3천명 가량이 구원받게 됩니다(행 2:41). 성경은 이들이 믿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때 구원받은 3천명의 사람들이 매년 한 명씩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일년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6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6천 명이 다시 일년에 한 명씩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둘째 해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만 2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 2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년에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셋째 해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2만 4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일년에 한 명씩만 구령한다면 29년 내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온 세상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일년에 한 명씩만 구령을 한다면 내년에는 전체 믿는 사람의 수가 두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년에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 그렇게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낚시대는 무엇이 좋은지, 릴이나 미끼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것도 못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물에 다이나마이트를 던져서 한꺼번에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냥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산속을 헤매며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산속을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낚시나 사냥에 대해 잘 모르고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비록 제가 낚시에 문외한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일년 내내 매일 낚시를 하러 나간다면 언젠가는 물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 다른 낚시꾼들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거나 대어를 낚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잘못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년을 꼬박 매일 낚시를 간다면 분명히 한 마리는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일년 내내 매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한 사람 정도는 “실수로”라도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낯선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관공서에 가면 항상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끼리는 “옷이 참 예쁘네요.”, “귀걸이가 예뻐요.” 같은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낯선 사람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낯선 점원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서도 낯선 점원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려진 종이를 낯선 사람에게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종이를 내미는 것은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 날씨나 전쟁이나 정치, 스포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예수

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10:8-11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9절과 10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11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든 부분은 좋아하지만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¹ 자신은 부끄러움을 잘 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할 수 있으면 11절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부터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 절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¹ 11절의 “Whosoever believeth on him shall not be ashamed.”는 중의성을 가진 문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흠정역 성경처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후자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주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선포자(preacher)”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목사(pastor)”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evangelist)”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임사역자(full time christian worker)”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포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선포(preaching)”²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선포(preaching)”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선포”는 설교단에 서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굳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정한 일을 특정한 방법으로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주교의 성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

² 영어 단어 “preaching”을 우리말로는 보통 “설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preaching”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preaching”이라기보다는 “teach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주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별들로 복음을 수놓아 사람들이 보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두 강제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는지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세 사람을 살펴볼 텐데 한 사람은 흑인이고 다음 사람은 백인이고 마지막 사람은 동양인입니다. 우리가 살펴 볼 첫 사람은 흑인으로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은 매우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27을 보십시오.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은 직장에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간

³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고전 1:18,21)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다는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선포를 가리킵니다. 복음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역주

것입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로 놀러 가거나 미키 마우스를 보러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휴가를 내서 성경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먼 지역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병거를 타고 먼 길을 갔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여행할 수 있는 차를 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병거를 타고 아프리카의 시내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는 여행을 하면서 쓸데없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쓸데없는 티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알렉산더 스코비가 녹음한 킹제임스성경 카세트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은 바른 하나님을 바른 도시에서 경배했고 바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33-34절을 보십시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

하였기 때문이로다, 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대륙을 가로질러 올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그것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가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이웃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8:26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밀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밀줄을 그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밀줄을 그어야 할 부분은 “일어나... 가라(Arise, and go)”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밀줄을 치세요. “일어나 가는데(rose and went)” (행 8:27)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읽으며 병거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기려고 피를 흘리시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 53:5)라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내시는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 내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량하고 신실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립이 자기도 바쁜 관계로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리더라.” “이에 빌립이 선한 삶을 살면서 내시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려고 애쓰더라.” “이에 빌립이 다음 주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꼭 나오라고 하더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선포입니다. 멋지게 살면서 얼굴에 미소만 가득담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자신도 거둬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preached).**”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교회도 없고 청중도 없고

설교단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는 것이 바로 “선포(preaching)”입니다. “선포(preaching)”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포(preaching)”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침례 교회를 선포하니라.” “지역교회를 선포하니라.” “근본주의를 선포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36절) 만일 빌립 NIV를 보고 있었다면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⁵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37-38절)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⁴ 흔히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말을 “설교자로 부름받았다(called to preach)”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preaching”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역주

⁵ 37절이 NIV에는 없습니다.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주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백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1-2를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람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독실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자신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그는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넬료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아홉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읍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왜 천사가 복음을 직접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서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벧전 1:12). 천사는 고넬료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한 말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가라(Arise…and go)”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였습니까? “일어나 가라”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빌립은 갔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베드로도 갔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아랫 사람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곳은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먼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그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는 무슨 말이든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가 없는 곳에서도 좋은 말을 들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던 것입니다(롬 10:14).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목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23-25절) 이탈리아 사람이 첫 교황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⁶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26절) 만일 베드로가 정말 초대 교황이라면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⁷

⁶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소속의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행 10:1).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천주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기 위해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역주

⁷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역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34절)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한 것입니다(39-40절). 44절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백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어떤 사람(베드로)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고넬료)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 말해 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고 빌립이 그 말씀대로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누군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같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지금만 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때도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사악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갑자기 사악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오래전

부터 사악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부정했습니다. 똑같이 더러웠습니다. 똑같이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좋은 직장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동료들이 자동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동양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썸족에 속한 사람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치셨습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6절) 만일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해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10-11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가서 (Arise and go)” 주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너는 집에서 쉬고 목사가

대신 가게 하라.”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가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11-12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가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아직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사울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의 이웃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제임스 닉스가 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누구누구가 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빌립과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갈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올 것이니 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

게 보이리라, 하시니”(13-16절)

이제 다시 밑줄을 칠 준비를 하십시오. “아나니야가 자기 길로 가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하였고 아나니야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하였고 빌립은 일어나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야에게 “네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나니야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였습니다. 빌립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였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낚시를 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실망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낚시를 그만두는 낚시꾼은 없습니다. 사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면 실망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사냥을 포기하는 사냥꾼은 없습니다. 쇼핑을 갔는데 살 게 전혀 없어서 빈 손으로 왔다고 해서 다시는 쇼핑을 가지 않는 사람은 정녕 없을 겁니다. 한동안은 쇼핑을 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쇼핑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다고 해도 다음에 또 다시 같은 팀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중에 상당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길에 버려집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에 거절을 당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일년에 한 사람씩 구령한다면 십년이면 열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한 한 사람이 또 일년에 한 사람씩 구령한다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년에 한 사람씩 구령한다면 결국 수백, 수천 명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100년 후에도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쓰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과연 중요한 것일까요?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었는지가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었는지가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가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제가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양의 임재 앞에서 황금길을 걸을 때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든지 무슨 대학에 가든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계로 인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것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

니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 우리가 “일어나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977년 2월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저는 주일 학교 수업을 인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주일 설교를 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남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은행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제가 마을의 중심 거리에서 손에 성경을 들고 처음으로 거리 설교를 했을 때 제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 저를 보시며 몹시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딜랜드로 이사를 와서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교회로 와서 성경과 제가 쓴 책들과 테이프를 포장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저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번째로 거리 설교를 했을 때에는 고급 승용차가 옆에 와 섰는데 안에는 마을에 있는 성당의 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전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반카톨릭적인 메시지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날 오후에는 확실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2분간만 정차했다 떠났는데 저는 그 2분동안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담아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197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복음을 전하다가 두번으로 늘렸고 다시 네번으로 횡수를 늘렸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게 즐겁지는 않았습
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갔는데 그렇게 억지로 나갈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
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며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솔직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러 나갈때는 즐거운 마음보다는 괴로운 마
음이었지만 막상 거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릴 때는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
롭게 해 주실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는 낙심하여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치료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에 와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
생활에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고 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구령⁸하라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대부분

⁸ 구령(Soul winning), 말 그대로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을 예수님께로 이겨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막 16:15).-역주

실패할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전혀 실패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줄 수는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선한 것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아이들을 먼저 채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상을 못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나니아도 일어나서 갔습니다. 베드로도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2과 씨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선포와 관련한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책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기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령(win soul)하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알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십계명과도 상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비평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인권운동과도 상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일 낮과 삼일 밤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나 안락한 곳이 아닌 온 세상으로 가서,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이 아닌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나 편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은 사도들의 “행위(acts)”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각권의 제목은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교회나 교부들이나 인쇄업자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은 “행위”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한 가지 행위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믿는 자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네 곳에 걸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를 하는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장과 창세기 3-6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 식물, 동물, 하늘, 그리고 별 등과 매우 친숙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주님의 말씀과 가깝게 지내는 것만큼이나 다른 창조물과도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고층빌딩이나 쇼핑몰이나 대도시를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콘크리트나 전등이나 자동차나 빌딩에 둘러싸여 있을

수룩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발명품과 발전이나 심지어 인간 자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무신론자 농부나 어부는 혼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전능한 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혼치 않습니다. 출렁이는 바다와 바람과 천둥과 폭풍을 보면서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물의 출생을 직접 보면 찰스 다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존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 무한히 현명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존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고 기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뿌리고 심고 기르고 추수하든 어떤 불편하는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던 자연 비료를 사용하든 간에, 직접 농사를 짓던 인부를 고용하든 간에, 트랙터를 사용하든 짐승을 사용하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쌀 한 톨이나 과일 하나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농부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음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을 가장 기름진 땅에 뿌리고 최고의 일꾼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시기 적절하게 비료를 공급하고 풍족한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별레나 곤충들에게 그 밭으로 가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을 보내시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큰 비를 내리시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큰 비가 내리게 되고 극심한 가뭄을 보내시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풍성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음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 수십억의 사람들로 인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기르는 개가 음식을 주는 주인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탁에 놓여있는 음식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향유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영역에도 해당되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포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전도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 교회들은 원하기만 하면 어느 시대에도 소유하지 못했던 최고의 전도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책상 머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에 답아서 전파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디나 테이프 혹은 컴퓨터 자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터넷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도지나 전도 책자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방송국이나 홈페이지

이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집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전도에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마당에 식물을 심어보세요.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자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요 4:31-33)

요한복음은 위대한 책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하시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주님께 샌드위치를 드렸나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물질적인 음식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기

를, 아직 너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요 4:34-35)

모두가 물질적인 음식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홀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너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35절)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나 빌립이나 야고보나 요한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중 아무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데에 있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으로 흔들리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고 그것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관심있는 대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점심 식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매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것만을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둘러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자동차가 고장났고 난방장치도 망가졌고 오후에 동료들과 함께 운동 경기를 하기로 했고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등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월요일에 죄를 짓지 않았고 화요일에도 죄를 짓지 않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두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고 살았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고 그럴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점심식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 보거라. 누가 음식을 가져왔고 누가 요리를 할 것인지는 잠시 잊어 버려라. 그리고 잠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거라.” 여러분도 하루에 3분씩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후좌우에 있는, 차 안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우리 아이들 공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후나 여가생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이생

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그 영원불멸하는 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 멈춰 서서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이미 회개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본다면 이미 수확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쁜 생활에 쫓겨 눈을 들어 보지 않는다면 결코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확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수확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밭에 나가 수확할 때입니다. 교육받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핑계로 나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거나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수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37-38절)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5-9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요한복음이 고린도전서보다 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가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고린도전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이후에 구원받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

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일한 것에서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하지 않은 것을 수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확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게 되든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 모두 상급을 받고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 같아도 5년 후에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데려갔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을 구령했고 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들을 구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결과와 수확은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갇난아 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고전 3:1-3)

우리나라에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일입니다.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4-5절) 모든 설교자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6절) 심는 것은 하나의 일이고 물을 주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역자며 둘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감사할 만한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수백명의 바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수백명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나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오 백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 형제처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가에 달려있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의 성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7절)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21세기 복음 전도자들을 비교해 보세요. 복음 전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보다는 자신들을 알리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셨기에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는지 알고 싶

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간에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자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8절) 모두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의 다른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을 함께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며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9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건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그러나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는가와 상관없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즐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레이더스(미국 미식 축구팀) 광팬입니다. 그는 레이더스 잠옷을 입고 자고 레이더스 자켓을 입고 레이더스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가 입는 옷이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대부분 레이더스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레이더스가 경기에서 이긴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구!”라며 소리치르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당신은 어제 경기에서 테클을 몇 개나 성공시켰나요? 몇 개의 터치다운으로 점수를 냈죠? 저는 당신이 플레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그는 레이더스 팀의 선수가 아닙니다. 단지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팀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팀이 승리하면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자나 티셔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⁹ 그러나 저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제가 구원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면 그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3-7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

⁹ 저자의 교회에서는 거리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흰 색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Jesus Saves)”라고 쓰인 붉은 셔츠를 단체로 입습니다. -역주

어지매 가시나무가 돌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씨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일을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는 오히려 씨앗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꾼을 고용했는데 그가 뿌리는 씨의 4분의 3이 제대로 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꾼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비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씨뿌리는 자도 제대로 말씀의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뿌린 씨는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잘못된 곳에 씨를 뿌려서 낭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린 씨앗 중에는 열매를 맺은 것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잘못된 곳에 씨를 뿌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8-9절) 첫째, 씨뿌리는 자는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일을 능숙하게 하지는 못했고 많은 씨앗을 낭비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그가 뿌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18-19절)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이해할지 혹은 이해하지 못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씨뿌리는 자는 어디가 좋은 땅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20-21절) 여기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둘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을 받은 자는 복음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반대를 하면 그만 두고 맙니다. 주님께서 씨뿌리는 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생겼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22절)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앞의 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씨뿌리는 자로부터 씨를 받았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완수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령하는 것이 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씨뿌리는 자를 기억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고 사람들이 비웃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전도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씨를 뿌렸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든 주님께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씨를 뿌리라는 것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를 통해 복음을 전해도 허탕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미리 보 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정적인 진리를 통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시간 낭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낭비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시간 낭비를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4:14을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을 열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군가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15절)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넷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마귀는 그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뿔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16-17절) 베테랑 복음 전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아서 집에 찾아가보니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더 복음 전도자를 낙담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미리 이러한 일도 예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18-19절)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들의 인생

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망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복음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되고 사업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트에서 핫도그를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50대인데 알코올중독자이고 사업은 망했으며 결혼과 이혼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그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아저씨의 인생을 망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면 다 듣고 나서 복음을 이해는 하겠지만 믿지는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지고 낙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을 예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관대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일의 75%가 실패해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학교 시험에서 25점을 받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명령에만 순종한다면 25점을 받아와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보다 못한 점수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잘못 전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

라 여러분의 육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역에서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도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진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지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것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20절)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말씀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꾸준히 전하면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다섯 장의 전도지를 건네주는 것보다 천 장의 전도지를 건네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오 분간 설교하는 것보다 5년 간 거리에서 설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비유를 세 번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눅 8:11) 씨는 말씀이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12절)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탄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이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13절) 이사야서 53:2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뿌리이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를 믿어서는 뿌리가 생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서는 뿌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14절)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복음에 호감을 갖고 듣다가 이 세상의 쾌락을 생각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술을

마시며 즐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본다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15절) 복음서에서 세 번에 걸쳐 나온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씨를 뿌린 사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첫째 그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만일 첫째 그룹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씨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복음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룹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시 씨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룹은 어떨까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일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역시 씨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디오피아 내시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씨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좋은 땅 조차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가 없이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씨를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인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전 11:4) 이것은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실망시키는 상황은 늘 존재합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전 11:5)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우리가 뿌린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너희는 태 속에서 뼈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영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씨를 뿌려야 하는 때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복음을 전할 적절한 시기에 관해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적절한 시기에 대해 조언을 구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 것이 잘 될는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6절)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

고 싹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뿌린 씨가 영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백배의 결실을 낼지 모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뿌리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뿌린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저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시 저의 간증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이 있을 때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70세 가량 되신 나이 많은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¹⁰ 그는 제가 입고있던 누더기 같은 청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¹¹ 그는 저를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도지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1931년에 구원받았단다. 나는 지난 50년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었단다. 주 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가게에서 무엇을 살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넬 때마다 나는 전도지를 함께 건네 주었단다. 그런데 나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춰서는

¹⁰ 당시 저자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주

¹¹ 당시 미국의 청년들 사이에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게 유행이었고 저자도 그런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역주

안 된다는 것을 믿는단다.”

50년간 전도지를 나눠 주었는데 아무도 구원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그는 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1976년 12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구원받은 지 6주 후에 주님께로 갔습니다. 저는 수백만부의 전도지와 전도 책자를 배포하고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그 노(老)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가 어떤 땅에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완악하고 교만하고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3과 우물가의 여인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에게 온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81세인 사람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집에서 쉬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휠체어를 끌고 12블록을 나가야 하는 시내에 갑니다. 시내에 나가서 길 모퉁이에 휠체어를 세우고 그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장과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동기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게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때문에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방금 읽은 로마서 1:16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킹제임스성경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둘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옷이 벗겨 지시고 침뱀음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학교나 직장에서 영화배우나 탤런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운동경기나 스포츠 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한 영화배우나 팀을 상대방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팀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좋아하는 영화배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옷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와 같은 말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합니다. 머리 얘거나 옷 얘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는 그 분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 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게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과 이야기

를 나눕니다. 은행이나 상점이나 주유소에서 항상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매일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유독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점원은 “8천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갑에서 8천원을 꺼내서 점원에게 건네줍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에서 “특별한 종이(돈)”를 꺼내어 “낯선 사람(점원)”에게 건네주는 일은 그리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묘사한 것을 상황만 조금 바꿔서 그대로 재현해 봅시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특별한 종이(전도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상점이나 주유소에서는 항상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왜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그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TV가이드를 주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잡지나 신문을 주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그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할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더 잘 생기고, 더 예쁜가를 놓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더 잘하느냐를 놓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위해 변론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으로 목청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변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힐 때가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주문을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 중에는 낯선 손님이 왔다고 해서 주문을 받으려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의 일이니까 그렇지요.”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웨이터가 손님에게 주님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할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낯시꾼도 자신이 낯시를 하러 가지 않아도 누군가 낯시를 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낯시를 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골프를

치러가지 않아도 누군가 골프를 치러갈 것이기 때문에 골프를 치러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식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식사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들은 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서 유독 복음에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굶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다 돈만 벌어서 주면 가족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집에 돈을 벌여주는 것과 별개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선교헌금을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왜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매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달랜드 플로리다에서도 지난 100년간 그러한 박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박해가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일어났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아닙니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을 걱정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매를 맞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찢어버릴 것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를 버리면 큰 낭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를 찢어 버리면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 두려운 것입니까? 더 이상 나를 집에 초대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까? 더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나를 피할까 두려운 것입니까?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또는 욕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않으시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상사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그런데 욕을 먹을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100명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려고 하면 아마 40명 정도만 받을 겁니다. 60명 정도는 아예 전도지를 받는 것조차 거절할 겁니다. 몇 명은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4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39명은 전도지를 받고나서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갈 겁니다.

백 명 중 오직 한 명 정도만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전도지를 뒤집어 보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하고 물을 겁니다. 정확한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대략 한 달에 한번 정도 술취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없는 아기들이 죽도록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지?”, “외계인은 존재하는 것인지?” 등.

어떤 사람이 저에게 “복제 인간은 혼이 있느냐?”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혹시 복제 인간이세요?”라고 묻고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복제 인간보다 먼저 당신 자신의 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당신의 혼부터 걱정하고 그 다음에 복제 인간의 혼을 걱정합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질문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의 질문에 대해 다 답을 해줄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께서는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5)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휴대 전화는 가지고 있더군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싫다는 사람도 사람들과 이야기 하기 위해 휴대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원의 방법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설교하면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6살짜리 아이라도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요?” “정말 그렇군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해 주러 갑시다.” “오, 저는 복음을 전할 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이제 이런 식의 대화는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방법과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할 만큼 성경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

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사람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으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 4:4-9)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따라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자와 나눈 대화는 어떤 신화적인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논쟁이라기 보다는 가볍게 낚시대를 드리우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도움 없이는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물을 마

시는 일이 주님께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물을 길 수 있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는 것은 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10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셨던 음료수 중에 가장 시원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콜라를 주문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주문을 받는 사람이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주문하기 어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를 주문할 수 있다면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요? 사람들은 영화배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11절) 여자는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물 길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물은 어떻게 마시려고 하세요?” 여자는 물을 달라는 주님의 정중한 요구에 무례하게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자의 무례한 응답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12절)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떠서 바쳐야 하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원하셨기에 그녀의 무시와 냉대에 언짢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녀의 혼이 구원받고 그녀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13-14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야말로 영원에 이르는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당신처럼 여러 가지를 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영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무슬림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다보면 약간의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말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그들은 다음 상점으로 가려는 마음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빨리 집에 가서 TV를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도 말싸움을 하게 되거나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준비된 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리에 서서 성경에 대해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담대해지세요. 성령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세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15-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여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회심자를 얻기 위해 온갖 심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신들의 교회가 수천명을 구령했다고 자랑합니다. 저는 자신이 수만명을 구령했다고 자랑하는 부흥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진정한 회심자를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자는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문제를 빼버린다면 제대로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죄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읽은 기독교 신문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작년에 5만명을 구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령한 49,999명은 아마 그 사람이 자신들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에게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합류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은 유일한 성경의 인물은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는 구원받고 나서 아프리카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마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¹²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¹²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아마 사도행전 8장에서 구원받은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역주

하시니라.”(17-18절) 이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여자는 무엇인가 문제있는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문제삼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지 않으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문제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낚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낚시줄을 감고 계십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19절) 이제 종교적인 논쟁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다녀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는 침례교회에 다녀요.”,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등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북부 지역의 사람들은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합니다. 서부 지역의 사람들은 “저는 그런 데에 관심 없어요.”라고 합니다.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저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일종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남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서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술집에 드나들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남부에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거기서는 “구원 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20절) “저도 종교가 있어요.”, “저도 교회에 다녀요.”, “지금 당신의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좋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21절)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¹³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저도 교회에 다녀요.”라거나 “저도 세례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을 믿은 적이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22절) 여기서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들의 감정이 상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요?” “전도지입니다.” “아, 저도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¹³ 영어 King James Bible에서는 “Woman, believ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우리말 번역이 되려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는 “여자여, 나를 믿으라.”가 되어야 합니다. -역주

있습니다.” “당신이 뭘데 나를 판단하는 거요?” 이러한 반응에 상처를 입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레놓고 다음주에 교회에 와서는 “담대한 주의 군사여”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겍쟁이 주의 군사여”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용기를 잃어버린 겍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보일 반응이 두려워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23-25절) 여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증언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와서 참된 진리를 말해줌으로 그것을 꼬집어 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우물로 물을 길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리에 대한 갈망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26-27절)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으며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무도 이 여자의 혈통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

들에게 말하되”(28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을 길으러 왔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29절) 이 여인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복음 전도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집에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전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걸어다닐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전도지를 나눠 줄 두 손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에 그들이 도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30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이혼이 지금처럼 흔하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중동 지방은 이혼한 여자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뱌는 것을 수치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버리려고 했었습니다(마 1:19).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만큼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랬을 겁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여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녀는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나쁜 상황도 그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39절) 이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이 여자가 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을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도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오늘 누군가 구원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낚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구원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롬 1:16)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4과 빌립과 내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임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매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로 서로 교제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이 한 복음 선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것은 스테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행 8:1) 이들이 바로 나중에 야고보서의 수신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약 1:1).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앞 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사도행전의 처음 7개의 장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셔서 믿는 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핍박은 그것을 받는 측면에서 보면 끔찍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개인들은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핍박은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는 항상 핍박을 통해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행전 8장의 본문에서도 사도들을 제외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옮겨 장사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행 8:2-4)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제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스테반이 순교했다고 해서 복음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사도들이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복음전파를 멈추지 않았습 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 람들의 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 파하는 일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성경은 이제 5절에 이르러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5절) 이것은 놀라운 말 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빌립이 다시 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이 더 위대한 도시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제사에 대해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행위에 대해 선포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그것

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6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분주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러가기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러 가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마비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 이더라.”(7절) 이것은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빌립은 신유의 기적을 행하거나 은사주의 집회를 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8절) 이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교육운동이나 종교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도시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도 범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온갖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회나 종교나 교육이나 정부가 개혁되어야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그런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가정도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직업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도시도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 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9 절)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항상 “그러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시몬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손쉽게 오류로 인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술이나 마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자신을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뉴스 미디어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문이나 잡지나 TV가 하는 일입니다. TV나 잡지에 나오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거나 그들을 따라 하며 그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TV나 언론이 만들어 내는 스타는 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알게 되면 매우 크게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TV나 언론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띄워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10-12절) 시몬이 한 일은 그저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시몬밖에 몰랐기 때문에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타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

서서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하자 사람들은 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고 예수님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됩니다. 죽어 없어질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됩니다. 빌립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시몬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자신들이 따르던 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항한 빌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12절)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이 바로 빌립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은 전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의 이름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13절)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시몬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몬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

리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머물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빌립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들과 표적들로 가득차게 된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성경은 시몬이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빌립과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14-19절)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는 믿는 자였고 성령님을 받았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높이 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시몬은 마법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마술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

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위대한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20-21절) 시몬은 믿는 자였고 침례도 받았으며 사도들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위치에도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게 아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의 마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구원받기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 합니까? 아마 나의 마음속에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가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나는 너무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누군가 나를 합당하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합당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그랬습니다. 시몬은 구원받기 전에도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밖에 나가서 복음이나 전하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22절) 시몬의 생각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네가 쓸개에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23절)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를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만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만심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시몬은 쓴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찮은 일보다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의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24절) 이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그는 비록 잘못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25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했으며(5절),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했고(12절),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25절).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영적인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26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결과를 원합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도시 전체가 빌립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빌립의 복음 선포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빌립의 복음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도시 전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회원이 500명 가량 되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라고 하신다면 어땠겠습니까?

빌립은 주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사마리아로 갔고,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시면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성공적인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의 안락한 삶과 여러분의 가족밖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우간다에서의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일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거기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을 느끼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사막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가라(Arise, and go)” 빌립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일어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빌립은 “일어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고국을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27절) 저는 이 “보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빌립이 사막으로 가면서 누굴 보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보니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바로 이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지금 휴가를 얻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니다. 내시는 휴가를 이용해서 거룩한 도시에 방문해서 거룩한 전에 들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알려진 “세대주의의 선”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도시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는 자기나 자기의 조상과 관련이 없는 성전에 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도 주목해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진리를 갈구하면서 구원받기 원하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선교사를 직접 데리고 가서 사막 한 가운데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28절) 이 장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시는 쓸데없는 책을 읽거나 세상적인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았습시다. 그는 라디오를 듣던것도 아니었고 월스트리트저널을 읽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꽤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29-30절) 빌립은 달리는 병거를 따라잡으려고 달려갔습시다.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내시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거친 사막에서 달리느라 여러 소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가 읽는 소리는 옆에서 달리는 빌립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마 병거를 모는 운전기사도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죽으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빌립은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빌립은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여러분에게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정해 주셨기 때

문에 쉽게 복음을 전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빌립은 주님의 명령대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특정한 사람에게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에게로 빌립을 인도해주셨습니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31절) 내시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은 “읽는 거 이해하시겠어요?”라고 하자 내시는 “아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외모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수염이 있었는지 아닌지, 혹은 그의 머리가 갈색이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휴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계획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바른 사람일까요? 성경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리 내서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른 사람일까요? 구약성경만이 있는 시대에 다른 곳도 아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비평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은 순수한 동기로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바른 사람일까요? 내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이 사람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빌립을 사마리아의 부흥회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하나님을

바른 곳에서 경배하고 바른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읽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읽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가 필요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였더라.” (32-33절) 내시가 읽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자원해서 십자가에 오르는 부분을 읽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부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시가 읽던 부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양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중에 빌립이 병거 옆에 달려와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34절) 내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읽기에 적당한 부분을 읽고 있었지만 자신이 읽은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35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복음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행

동도 복음을 대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삶과 행동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만한 것으로 뒷받침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은 내시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행 8:5, preached Christ unto them). 그는 병거에 앉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행 8:35, preached unto him Christ).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단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제가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마이크에 대고 청중의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preaching)는 소리를 지르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설교하면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설교(preaching)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질러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중은 여기 저기서 “아멘”을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설교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색을 하면서 “방금 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이해하신 분 있으신가요?”라고 질문을 하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 인용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전화번호부책에 나온 문구 중 일부였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나란히 앉아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전혀 소리를 질러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preaching the gospel)”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으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막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 이 명령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36-37절) 만일 빌립이 NIV¹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을 제외한 다른 번개된 성경들의 문제 중 하나는 사도 행전 8:37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38절)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¹⁴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새국제역본)에는 내시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 부분인 사도행전 8:37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성경인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도 동일하게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고 대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주

함부로 비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기도를 하게 인도한 후에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기도가 구원받는 데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종류의 영접기도도 하지 않았고 기도문을 따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릎꿇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은 어떤 교회나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특정한 방식과 관련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접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계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설교가 끝나면 설교단 아래에 모여 무릎꿇고 영접기도를 해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복음 설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정한 방식이나 자신들의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눈물콧물 다 흘려야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금 결정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37절) 빌립은 내시에게 믿느냐고 물었고 내시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절차를 치르거나 어떤 문답을 주고받지 않고 병거를 세웠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이면 침례를 받

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방법이나 누구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36절)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행 9:6)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면 영접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말씀을 믿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37절)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롬 10:10)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36b-37a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아기들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합니다. 만일 아기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저도 그들에게 침례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의 의미는 전혀 모른 채 잠을 잔다든지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웅아리를 하는 아기들에게는 절대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37b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이 복잡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지 수십년이 된 사람들은 의도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복음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 무엇인지 알았나요? 아니면 “구속”이라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 정의를 알고 있었나요? 아마 구원받은 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이나 성경 용어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면 아마 자기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으로 복음을 믿는가입시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복음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알고 있는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가며 영접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38절) 만일 침례가 아닌 세례가 맞는 것이라면 빌립과 내시가 물에 들어간 것은 우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맞다면 병거를 멈출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 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39절) 만일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두려운 광경이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빌립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결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막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다? 역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도시 전체에 기쁨을 주고자 한다면 해야 할 일이 오직 한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사람은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40절) 이 구절을 보면 빌립은 마치 “복음 선포 기계” 같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복음은 항상 쉬운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복음은 항상 단순하고 쉽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복음과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5과 베드로와 고넬료

오직 한 분의 구원자만 믿는다는 것은 매우 편협한 생각일 수 있지만 바른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와 지옥 그 어디에도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다양성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두 혀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묻히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였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누구의 행위인가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만이 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희생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희생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과 성경에 나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성경은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 11:30)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구령(soul winning, win soul)”이라는 말의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구령은 신약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복음을 선포하라(preaching gospel)”거나 “전하라(witnessing)”고 명령하십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혼동하면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믿게 만들기 위해 골몰하다가 강박관념에 시달려 정신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장사꾼들이 써먹는 판매전략 같은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복음 선포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선포는 단순히 훌륭한 삶을 살고 좋은 모습을 보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선포는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 사람은 매우 흥미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앞의 과에서 공부한 이디오피아 내시와 비슷합니다. 만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과에서 살펴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읽던 부분은 이사야서 53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매우 잘 전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원

받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께 바른 장소에서 경배했지만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행 10:1)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곳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백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아홉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옴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2-6절)

잠시 고넬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성전에서 경배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지만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참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제행위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개념으로는, 즉 인간들의 비 성경적인 생각으로는 선한 사람이 하늘 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을 부인하는 수많은 자유주의 목사들과 역시 동일하게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이 일은 아마 고넬료의 인생에 최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봤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 법”이라는 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천사와 있었던 일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천사에 대해 책을 쓰고 포스터를 끼워 판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와 관련된 많은 물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천사는 고넬료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복음에 대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십자가의 의미나 부활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라고는 베드로를 부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밤에 수천의 천사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복음을 아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들어보라는 메시지가 전부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경배하던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상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의 목록이 있습니다.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몸에 나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듯이 위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은 중요한 것인양 열심히 지켰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너무 혹독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비슷한 잘못을 하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율바로 보내니라.”(7-8절) 고넬료는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여섯 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에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귀통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9-12절)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뷔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13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매우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14절) 이 구절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주님이라고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지 지적해 드리고 주님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이것은 그리 잘못된 말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6절에 의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무두장이에 대해 연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두장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죽

이고 그 살은 먹고 가죽으로는 옷이나 신발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듭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구약성경에서 금지하는 동물들을 결코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는 죽은 동물을 만지는 사람과 악수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한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¹⁵ 저는 지금 베드로를 깎아 내리려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위선과 잘못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부분은 지키고 선호하지 않는 부분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위선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위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고 훌륭한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땅히 되어야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¹⁵ 죽은 동물의 사체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11:29-43에 있습니다.-역주

자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베드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선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는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궁금해 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서 서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15-18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가 보낸 사람들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지내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19-20절)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8장에서 빌립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9장에서도 아나니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에서 베드로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하라”거나 “머뭇거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

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21-22절)

만일 여러분 중에 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고넬료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의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 선하다고 증언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의 종들이 그가 선하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직원들은 항상 사장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저는 단 한번도 “우리 사장님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분이 되시고 항상 바른 일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넬료의 종들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넬료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자랑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확실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천사”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고넬료를 방문한 것이 “거룩한”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사를 묘사하면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선행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읍

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23절) 20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24-25절)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이 교황을 만나면 하는 동일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왕자”인 베드로를 보고 경배하는 것은 이탈리아인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황을 처음으로 만난 이탈리아인이 교황의 발에 입맞추고 경배하려고 했을 때 소위 “초대 교황”이 한 행동이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 고는”(25-26절)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의 “초대 교황”이자 “사도들의 왕자”인 베드로는 인간을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짓에 대해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경배하려는 사람을 보거든 베드로처럼 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손이나, 발이나, 반지에 입맞추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여러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27-28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한때는 율법이 유대인들을 위해 주어졌고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전혀 중요하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초청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아홉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29-30절) 고넬료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옳바라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31-32절) 어떤 침례교인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불신자들의 유일한 기도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꼭 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야, 나는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있구나. 나는 너의 구제도 다 보았다. 그러나 역시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이제 너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 가서 너 같이 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도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를 데려오거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와서 무엇을 하리라고 기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말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33절)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내와 아이들과 이웃들과 직원들까지 다 모아 놓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칙 전도지¹⁶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요”(34절)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사도행전 8:35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시는

¹⁶ Chick Tract,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도지입니다. 칙 전도지는 Jack T. Chick이라는 사람이 만화로 만든 전도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chick.com입니다. -역주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35-36절)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시되”(37-40절)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서는 죄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 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41-43절) 복음 선포(preaching)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증언하는 것입니다(testify).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구제도 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식도 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다. 그는 선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그를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매”(44절)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잘 보십시오. 아무도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접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설교단 앞으로 나가서 무릎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6:31). 성경은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기도를 했는지, 구원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45-46절)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번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47절) 이 구절은 침례에 관한 논쟁을 종식 시킵니다. 침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믿고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고 8장에서도 그랬고 9장에서도 그랬고 이제 10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 침례를 받는다는 건지 믿게 하기 위해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48절)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행 11:1-3) 바른 쪽에 서려는 사람은 잘못된 쪽에 선 사람들의 오류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나 혹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설교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성경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게 자신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를 지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서로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합니까? 마귀가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있는데 왜 우리끼리 힘을 빼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읍바 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네 귀통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더라. 내가 그것에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하니라.”(4-8절) 베드로의 입에서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나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속되고 부정한 것이 나온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것이 들어간 적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바리새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의 종교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오류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전의 종교생활에서 행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는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또, 보라, 즉시로 세 사람이 내가 있던 집에 이미 이르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읍바

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9-14절)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유대교를 믿도록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에 관한 것이나 계명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15-16절) 베드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더라.”(17절) 14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서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침례나 세례는 구원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18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회개에 대한 논쟁들”은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로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회개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는 술취함을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웠던 것을 회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했던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모든 죄들을 그만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행 20:21).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범하고 있는 25개의 큰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그들의 혼을 저주하고 있는 한 가지 큰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선행을 믿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고넬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을 때 어떤 서원을 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죄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선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운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술마신 것을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욕지거리를 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과 10장에서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헌납하고 어떠한 인간이 한 것보다 훨씬 큰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에서 선행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의(self righteousness)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죄를 그만두는 것으로도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의만 강하게 할 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선하든, 혹은 얼마나 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악한지는 하나님께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슈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만큼 선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 쉽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른들처럼 핑계를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른들처럼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만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그만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만이 의미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 만이 악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입을 열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6과 눈먼 사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나 권면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과 권능을 받고 능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8).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신 이유 중 하나는 저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입니다(살전 5:19). 그것은 마치 촛불 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우물가의 여인은 매우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실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네번의 재혼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그녀와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

씀하셨습니다(요 4:18).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셨고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지 않은 과거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행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 예수님을 전하면 우물가의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가의 여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소경에서 시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후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자신이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이유로 종교인들로부터 압력을 받았지만 그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1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사람

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멈춰서서 주목해 보셨습니다.

2절에서는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제자들의 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눈먼 사람을 두고 그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두고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전부라면 눈먼 자는 그대로 눈먼 채로 있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채 있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예수님을 모른 채 있게 됩니다.

3절에서는 제자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와 불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눈먼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의 본질은 눈이 먼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이지 그가 눈먼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눈먼 것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인 것은 그의 육신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것입니다. 아무리 식사 제공을 해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굶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이 멀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4-7절)

진흙에 침을 뱉어서 문지르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 세련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종교인들에게는 별로 세련된 교리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진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장 소중하고 깨끗한 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다.”(7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자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대언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

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의 조언을 듣고 대언자의 말을 신뢰해서 요단 강으로 가서 씻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8-9절) 이 사람의 키가 더 자라거나 머리색이 변하거나 얼굴이 바뀌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알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인가 혁명적인 일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고 그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anointed)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10-11절)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것을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기름 부음(anointe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¹⁷ 사람들에게는 진흙을 침에 이긴 것인지 몰라도 그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¹⁷ 우리말 흙정역 성경에서는 “anointed”라는 말이 구약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번역되었습니다.-역주

을 비웃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을 두고 종교인들은 잔인하고 투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수염이 잡아 뜯기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한 일은 단순히 그냥 끔찍한 일이 아니라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으로 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11절)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12절)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나쁜 행실을 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생활과 행동이 모두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러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새 예루살

램에서 영원히 온 세상과 전 우주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이 묻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는 사실을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 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13-14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교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의 교회나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핑계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와 종교지도자들의 의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 나이다, 하니라.”(15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신 일을 매우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

니라.”(16절) 종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은 눈멀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이 분열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입장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어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17절)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A man that is called Jesus)”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했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지도 못했고 통신과정으로 성경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진리를 증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계시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는 만큼 이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수록 더 많은 계시를 받게 되고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공부에 참여해도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배

위도 기억나는 게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만이 아닌 온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온전히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눈먼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18절) 사람들은 그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와 촉감을 통해 사물을 분별했습니다. 그 형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형제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력을 주신다면 저는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껏 제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성경에는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시력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람이 나무 같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나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나무는 모두 처음 보는 것인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길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정신도 온전하게 해주신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이었던 자도 시력을 받은 것 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시력만 받은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19-20절)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보다는 천주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 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21절) 눈먼 사람의 부모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리를 전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22-23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24-25절) 여기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히 4:15).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묻는 것에 답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는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능숙하게 답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고 그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진리를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묻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자옥으로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26-27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의도와 태도로 전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둘째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꼬려는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비꼬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28-29절)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위에 있는 교회와 천주교회에 방문하여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과 신부들이 저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북해했습니다. 제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에 대해 듣기 원하는 목사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 간증을 듣고 자신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고 저는 그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그분의 참된 구원을 모른 채 종교생활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 주었다 하

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30-33절)

이 사람은 또 다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아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은 “한 사람(a man)”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도에 관한 책을 보지도 못했고 강의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그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이며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34절) 이 사람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눈먼 사람의 말에 반박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눈먼 채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

전히 거꾸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2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35절)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좀 더 계시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는 “대언자”로 알았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 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알게 되었습니다.¹⁸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나이까? 내가 그분을 믿고 자 하나이다, 하매”(36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지식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¹⁹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리라.”(37-38절)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력을 받은 바로 그 날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¹⁸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 “of”는 소유격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격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The City of Seoul”이라고 하면 “서울의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즉 “서울시”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God the Son)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하시는 역할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혼보다 지위가 낮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는 말이라고 이해하고 분개했던 것입니다(요 10:33).-역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39-41절)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시력은 있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없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육신은 시력은 없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있었으며 결국 육신의 시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 주신 일에 대해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3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눈먼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주님을 따라 다니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과 9장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과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증언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¹⁹ 물론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것은 신약적 의미의 거듭남과 구원은 아닙니다. -역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히 10:32-33)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 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명을 받은 뒤에 사람들과의 싸움을 견디어 내고 예수님에 대해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34-37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일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부록1 조지 가(街)의 복음 전도자

이 글은 원래 동영상으로 된 것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조지 가(街)의 복음 전도자(George Street Witness)”입니다. 동영상에 있던 자막을 거의 그대로 입력하였지만 음성파일을 듣고 자막을 확인해 가며 입력하였으며 지명에 대한 몇 가지 오류는 바로 잡았습니다.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부분은 자막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메시지는 복제와 복사가 허락되었습니다. 많이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쯤 런던 남쪽의 크리스탈 팰리스 파크 침례교회(Crystal Palace Park Baptist Church)의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뉘도 될까요?”라고 물었고, 목사님은 시계를 보시고 “3분 안에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새로 이사왔습니다. 전에는 런던의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호주의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친척을 방문하고 사업과 상업으로 번창한 시드니의 조지 가(街)를 걷고 있는데, 낯선 백발의 노인이 와서 가게의 문을 열면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시며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손히 감사를 표한 후에 자리를 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마음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그후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후에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아들 레이드(Adelaide)에서 열린 침례교모임에서 한 여성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시드니에 살았습니다. 몇 개월 전에 친구를 만나고 나서 쇼핑하러 조지 가에 갔는데 백발의 노인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전도지를 주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굉장히 신경쓰여서 아들레이드에 돌아온 이후에 집 근처에 있던 침례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상담했고 목사님은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런던의 목사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 2명에게서 동일한 간증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퍼스(Perth)에 있는 침례교회에 가게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장로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뛰어난 사업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3년 전부터 시드니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쇼핑을 하고 있는데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침례교회의 장로라고 말했지만 그는 제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후에 저는 다시 퍼스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목사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제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으며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은 런던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키즈킵 컨벤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3명의 간증을 청중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배 후에 나이가 지긋하신 4명의 목사님이 와서 자신들도 각각 대략 25년부터 35년 전 사이에 시드니의 조지 가에서 그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전도지를 받고 동일한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런던의 목사님은 캐리비안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자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자신들은 15년부터 25년 전 사이에 구원받았는데, 시드니 조지 가에서 그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전도지를 받고 동일한 질문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런던의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 조지아(Georgia) 주에서 해군 병사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집회에서 천 여명의 해군 병사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런던 목사님은 군목감(장군)과 식사를 하는 중에 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해군으로 복무하며 훈련을 하는 중에 우리 함대가 시드니 항에 정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킹즈 크로스에서 술을 마시고 버스를 잘못타고 조지 가라는 곳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며 ‘**이보게, 자네는 구원받았는가? 오늘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충격을 받고 전함으로 복귀후 군목과 상담하게 되었고 군목은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 군목의 인도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군목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런던 목사님은 인도 북부의 외딴곳에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행사 담당자는 이 목사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런던 목사님은 그 담당자에게 어떻게 힌두교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인도 정부를 위해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특권을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요. 저는 예수님의 용서와 저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옷 등 선물을 구매하려고 조지 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밤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만 근무지에 돌아와서도 그의 질문을 생각하니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있던 힌두교 지도자들과 상의해 봤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 힌두교 지도자는 저의 호기심 때문일 거라며 거리 끝부분에 위치한 곳에 있는 선교사에게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선교사를 찾아갔고 선교사는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힌두교를 버리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의 직무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만명을 구원하는 선교사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8개월 후에 이 런던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의 한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목사님은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조지 가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백발의 노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제노르(Genor)라고 하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고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런던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몇 일 후 그 백발의 전도자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작고 연약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런던 목사님은 노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지난 3년간 자신이 들은 간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 노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호주의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영망진창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료 중 하나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하루에 최소한 1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간단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심으로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지 가에서 거의 40년 이상 복음을 전해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수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이 일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제가 한 일을 통해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사역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과를 한번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146,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질문으로, 어떠한 “놀라운 은사”도 없었던 이 침례교인의 증언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런던 목사님이 확인한 결과는 정말, 아주, 매우 작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지에서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발의 전도자 제노르 형제님은 런던 목사님을 만나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들은지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카리스마 잡지>나 빌리 그래
함의 <디씨전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작은 제노르 형제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유
명한 사람으로, 하늘나라가 제노르 형제를 알고 있고, 큰 환영 가운데 영광 속
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
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마 25:23)

부록2 하나님의 구원 계획

Dr. Ford Porter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지 슬픔을 맛볼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니”(롬 6:23)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예수님께서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레 17:11)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8)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무관하게 저의 죄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 17:30)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당신이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0-31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의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13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
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
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해서 죽
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
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
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
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
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
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
해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 리가 없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
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당신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
겠느냐?”(막 8:36)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당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딤후 1:8)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전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마 10:32)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달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옮긴이 : 이우진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現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편집장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